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택희 편집국장:조선훈

'93 청지기 훈련 실시

4월 5일(월)~5월 4일(화), 교회당에서 5차에 걸쳐

교회는 1993년도 청지기 훈련을 오는 4월 5일(월)~5월 4일(화)까지 교회당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직분자 전원(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녀서리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 교회직원)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지기훈련은 전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교회의 목표와 사명, 각자의 사명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헌신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금년에 특히 지난해에 이은 배가운동을 달성해야 하는 해이기에 모든 초점을 전도에 맞추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배가 전도에 앞장서자"라는 표어하에 찬송가 259장(빛의 사자들)을 주제찬송으로 정하고 금년도 교회성구인 디모데후서 1장 14절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를 주제 성구로 하였다.

기간중 매주 월, 화 이틀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게 되는 본 훈련은 직분자는 반드시 훈련을 수료해야 하며, 1994년도 신임 직분자는 가능한 본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각 교구별 훈련일자 및 청지기 훈련 시간

표는 다음과 같다.

◆교구별 훈련일자

· 1차 : 4월 5-6일 1연합교구
(1, 4, 15, 16, 19, 22교구)



▲ 지난해 기도원에서 열렸던 청지기훈련 모습. 청지기훈련에는 모든 직분자가 예외없이 참석해야 한다.

· 2차 : 4월 12-13일 2연합교구
(2, 5, 6, 18, 20, 23교구)

· 3차 : 4월 19-20일 3연합교구
(7, 8, 13, 14, 21교구)

· 4차 : 4월 26-27일 4연합교구
(3, 9, 10, 11, 12, 17교구)

· 5차 : 5월 3-4일
훈련미필자를 위한 추가 훈련

◆훈련 시간표

▷ 첫째날

오후 6:00 - 7:00 (60분)

식사 및 교제시간

7:00 - 7:30 (30분)

찬양의 시간

7:30 - 8:30 (60분)

강의(1) "무엇을 전할 것인가(복음의 내용)"

강사 : 김해규 목사

8:30 - 8:40 (10분)

간식 및 친교시간

8:40 - 9:40 (60분)

강의(2) "무엇으로 무장할 것인가(기도)"

강사 : 김양환 목사

9:40 - 10:00 (20분)

합심기도회 : 장봉생목사

▷ 둘째날

오후 6:00 - 7:00 (60분)

식사 및 교제시간

7:00 - 7:30 (30분)

찬양의 시간

7:30 - 8:30 (60분) 강의(3)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전도의 방법)"

강사 : 임성환 목사

8:30 - 8:40 (10분) 간식 및 친교 시간

8:40 - 9:40 (60분) 특강

"왜 전도해야 하는가(시대의 요청)"

강사 : 신성종 목사

9:40 - 10:00 (20분) 합심기도회 :

김희수 목사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3월 22일, 국동방송 부활절연합예배에 관한 대담 '하나되게 하소서'
(오후 2:50-3:40)

· 3월 25~28일, 대구 달서교회 부흥회 인도

2. 당회장 신성종 목사

· 목회자 세미나 특강(매주 월)

· 3월 22일, 한국 선명회 직원예배에서 설교

조인제 장로,
건국대 병원장으로

조인제 장로(에바다부 부장)는 그동안 건국대학교 부속병원 진료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3월 11일자로 충주 건국대 병원장이 되었다.

군목후보생 수련회 열려

지난 3월 16일(화) 교회당에서,

제9회 군목후보생 수련회가 지난 3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우리 교회당 선교관 5층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군복음화 후원회가 주최하고 국방부군종실에서 주관하고 우리 교회가 후원한 금번 수련회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개회예배에서의 설교와 "2천년대를 향한 군선교 전망"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특히 특강에서 신목사는 2천년대의 있게 될 여러가지 변화를 예측해보며 그런 시대 상황속에서 살고, 주님의 길을 감당해야 할 군선교의 역군들이 2천년에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군선교에 임해야 하는가를 말했다.

금번 수련회에는 후보생 34명, 국방부, 육본관계자 5명, 군복음화 후원회 회원 5명 및 우리교회 군전도회 회원 10여명이 참여했다.

4월 2일에 학습·세례식

교회는 4월 2일에 학습 세례식을 갖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비문답과 교육을 4월 1일 오후 7시 교육관 307호실에서 하기로 했다. 학습, 세례, 음역세례, 입교, 및 개종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고등부에서

가요 테이프 및 음반 수집

고등부 면려회에서 지난 2월, 동계수련회 후, 그동안 경전생활에 지장을 주었던 가요, 팝송등이 수록된 테이프와 음반을 수집하여 폐기하기로 하였다. 고등부 찬양팀인 야드나에서 먼저 시작된 이 운동은 전체 학생에게 확산되어, 앞으로 불량 가요음반을 사지도 듣지도 않기로 하므로 기독교소년 문화형성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등부 주일예배(오전 8:30, 봉사관) 장소 입구에 수거함을 배치하였다.

초등5부,
학교전도대 조직하여 활동

매주 토요일 학교앞에서
지난해에 160여명 전도해

초등5부(부장 윤성철 장로, 지도 성봉환 목사)는 교회 근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전도대를 조직하여 활동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에도 학교전도대 활동을 해 160여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120명이 동반하여 출석하고 있다.

학교전도대는 도성, 논현, 학동, 역삼국민학교를 전도활동대상으로 정하고 각 학교마다 2명의 담당교사가 우리 교회 초등5부 학생과 함께 배치되어 매주 토요일 각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5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열심으로 결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년에는 3월 20일(토)부터 시작했는데 담당교사는 도성국민교에 이순애, 선옥자선생, 논현국민교에 장미순, 김승옥 선생, 학동국민교에 안명희, 임태정 선생, 역삼국민교에 최영순, 박봉숙 선생이다.



4월초에, 모스크바에 영상문화센터

영웅씨는 지난 8일, 우리 교회 당회장실에서 '한·러 영상문화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서'에 공동서명하고 문화원 운영전반에 관한 양쪽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비디오산교회와 독립국가연합의 국제교래인협회는 한국과 러시아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양국간 교류와 협력에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간 긴밀한 우호증진을 위해 '한·러 영상문화센터'를 서울과 모스크바에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비디오산교회는 오늘 4월초 모스크바에 문화원을 설립, 영상매체를 통해 한국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등 민간문화 교류에 이바지하는 한편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문화센터를 통해 러시아 선교사 파송 및 각종 정보자료를 국내교회에 제공하는 북방선교의 거점으로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충현강단



곡식과 가라지 비유

(마 13:24-30)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 13:30)

신 성 중

<목사·당회장>

본 문 말씀은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와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여 아예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지라는 말은 마태복음 13장에 여덟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라지는 밭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밭의 종류가 아니고 독보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라지를 먹게 되면 흔히 구토증이 생기고 심하게는 생명에 위협성이 있을 만큼 아주 독한 그런 풀입니다. 가라지는 크기가 밭보다 좀 작은 것이 차이점이고 자라는 그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날 초기 단계에는 전문가들도 잘 구별하기가 어렵고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뿌리가 밭 주변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밭이 함께 뽑혀져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보이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유형적인 교회, 혹은 전도하는 교회 등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르는데 교회는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혼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라도 있고 심지어는 가라지까지 밭에 사탄이 와서 뿌려놓고 잡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1. 비유의 내용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6절에서 43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나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바로 사탄마귀라고 했습니다. 밭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좋은 씨들을 이 세상에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좋은 씨만 돌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는지 잡초가 나오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아무도 잡초를 뿌린 사람은 없는데, 밭에 나가보면 곡식보다는 잡초가 더 많이 자라고 있고 잡초를 그냥 가만히 두면 나중에는 이 잡초가 완전히 곡식을 덮어버리

고 맙니다. 곡식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가꾸어주어도 제대로 안자라지만, 이 잡초는 막 뽑아내고 제초제를 뿌리며 제거하려고 애를 써도 어디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잡초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와 같은 잡초를 뿌립니까? 여기 뿌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25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잠잘 때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에 와서 뿌리고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에, 밤에 사탄은 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밤에, 실직을 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애쓰는 그 밤에, 이런 저런 시험의 밤에 사탄마귀는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또 한 가지 잘 때에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심령이 졸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온갖 쾌락의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나 가룟 유다나 이삭을 낳기전의 아브라함이나 하와와 경우가 그렇고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졸고 있을 그 때에, 잠자고 있을 그 때에, 기도하지 아니할 그 때에 사탄은 가라지를 자꾸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잠자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단 가라지를 사탄마귀가 뿌려놓으면 추수할 때까지 이것이 밭과 공존하도록 그대로 그냥 내버려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게 되면 가라지만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까지 뽑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치리를 행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치리를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치리를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리란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제직들 가운데 잘못을 할 때에는 그것을 치리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근신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정지를 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라지를 뽑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체적으로 분별하기에는 많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가라지와 밭은 너무나도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째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큰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셋째는 참 성도의 사랑과 봉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개 보면 교회에서 처음부터 마치 혼자서 교회일을 다할 것 같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일년이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재기 신앙가진 사람들은 좀 위험합니다. 우리는 조금 우리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는 겸손과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양은 잘 모릅니다. 가라지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취급하고 있느냐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충성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째는 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대항할 수 있는 용기와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런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가라지에게도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의 때는 바로 추수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가만 두어라’는 말은 심판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수때 주님 자신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교회 안에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적인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혼합된 단체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권징을 하되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함부로 이단시 하지 말고 또 자기와 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어서 하나하나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신앙의 스타일을 가진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막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신앙의 경향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별을 해주십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교회의 장점이고 좋은 점이 기도 합니다. 이것이 서로 협력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힘있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심판에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한다 했던 그 시간부 종말론자들인 다미선교회 사람들에게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고 비판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추수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 혹여나 가룟 유다에게 가라지씨를 뿌린 것처럼 가라지씨가 뿌려져 있지는 아니한가, 내 가정에 가라지씨가 뿌려져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곡식은 곡식이로되 그 야말로 알알이 잘 여문 알곡인가, 아니면 곡식의 모양은 다 있는데 그 안에 알이 제대로 차 있지 못한 실익은 쭉정이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췌로 여러분들은 마지막 추수때에 추수하는 주인인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실한 천국 알곡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서하지 않으면 인생농사 망친다

농사를 잘 지어 좋은 추수를 하려면 씨앗도 좋아야 하지만 그러나 퇴비와 좋은 비료를 주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를 못한다. 그래서 농부들은 퇴비중산을 위해 애를 쓴다. 농사를 지어보면 비료값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비료를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비료를 주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나라의 독서 인구 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대단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책 중에서 참으로 읽어야 할 책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책 중에 책임 성경은 지난 수천년 동안을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왔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생명과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글 / 신성중 목사

-1953·교회설립 40주년·1993-

제4회 충현올림픽 열린다

5월 28일(금), 정신여고 교정에서

교회는 금년에 제4회 충현올림픽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 준비위원 조직을 완료하고 이내 계획,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금년은 교회설립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를 실시하기에 온 교인이 우리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어우러진 그런 행사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5월 28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잠실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정신여자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릴 금년 충현올림픽에는 전 교인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성도들 간에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로 일체감을 갖고 40주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힘차게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실행부서 부차장 모임을 지

난. 3월 11일(목) 갖고 전반적인 설명 및 각 부서 업무 분담과 준비 일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제4회 충현올림픽 개요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 (1) 명칭 : 제4회 충현 올림픽
- (2) 목적 : 충현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전교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의 유대강화, 그리고 교회성장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체육 신앙 공동체가 주목적이다.
- (3) 일시 : 1993년 5월 28일(금), 오전 9시 - 오후 4시
- (4) 장소 : 정신여자고등학교 교정 (강남구 종합운동장 길 건너편)
- (5) 참석대상 : 충현교회에 등록된 23개 교구

전 성도

- (6) 주제찬송 : 295장 (빛의 사자들이여)
- (7) 주제성구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 (8) 소요예찬 : 약 5천만원
- (9) 주최 : 충현교회 설립 40주년행사위원회
- (10) 주관 :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

2. 조직

- 명예대회장 : 김 창 인 원로목사
- 대회장 : 신 성 중 위임목사
- 조직위원장 : 우 기 전 장로 (교구위원장)
- 지도 : 김 성 윤 목사
- 조직위원 : 박치민 장로, 최성현 장로, 차신득 장로, 손경수 장로, 윤성철 장로.

김여순 장로

· 실행부서 :

- 기획본부장: 손경수 장로 차장: 윤성철 장로
- 기획부 / 전승훈 집사, 전은배 집사
- 총무부 / 오진국 장로, 윤상언 집사
- 재정부 / 김영계 장로, 심정례 집사
- 섭외부 / 김춘권 집사, 안성영 집사
- 홍보부 / 조선근 장로, 이형수 집사

- 경기본부장: 최성현 장로 차장: 차신득 장로

- 진행부 / 차신득장로, 황의만집사
- 심판부 / 박승준 장로, 김광호 집사
- 기록부 / 임무천 집사, 엄복섭 집사
- 시상부 / 최윤덕 집사, 엄숙현 권사
- 전령부 / 전홍렬 집사, 신재성 집사

- 지원본부장: 박치민 장로 차장: 김여순장로

- 동원부 / 박영식 장로, 박인건 집사
- 시설관리부 / 김재명 장로, 김신 집사
- 봉사부 / 김영길 장로, 최명환 집사
- 의료부 / 손 철 집사, 김양자 집사
- 차량부 / 이하영 장로, 허명호 집사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3월 22일 극동방송 부활절 연합예배 대담 '하나되게 하소서' (오후 2:50-3:40)
 - 3월 25-28일 대구 달서교회 부흥회 인도
 - 신성중 목사님 : 매주 월요일 목회자 세미나 특강
 - 3월 22일 한국선명회 직원예배 설교
2.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의 사역위에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3.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온갖 죄악에서 떠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4. 교구별 목요기도회에 교구식구들이 힘써 참여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제4회 충현올림픽

표어 공모 및 피켓걸 공개모집

오는 5월 28일(금) 정신여고 운동장에서 개최될 제4차 충현올림픽의 전교인 참석 및 출전시기 양양을 위하여 표어를 공모하며, 당일 행사의 진행 질서를 뜻깊게 장식하기 위하여 피켓걸을 공개 모집한다.

1. 표어공모

- ◇ 내용 / 간단 명료하면서도 제4차 충현 올림픽 목적에 부응한 함축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 ◇ 표어말 수 제한 / 10자 이내로 하되 3행으로 할 것
- ◇ 응모마감 / 3월 29일(월)까지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선교관 305호)
- ◇ 당선작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올림픽 표어로 사용한다.

2. 피켓걸 공개모집

- ◇ 자격 /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응모가 단정한 자(미혼)
- ② 신장 165cm 이상인 자
- ◇ 진행방법 / ① 1차 : 사진 (얼굴중심 명함판 1매, 전신사진 1매(정면))
- ② 2차 : 면접
- ◇ 사진접수마감 / 4월 4일까지 (교구 추천도 가함)
- ◇ 채용된 피켓걸은 제4회 충현올림픽 행사의 선두 피켓걸로 대우하며,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
- ◇ 사진 뒷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교구를 표시할 것

주후 1993년 3월 14일

제4회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우 기 전 장로

겨

우내 움추렸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하면서 힘들었고 소망이 없었던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난다. 10여년 가까이 해오던 사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였다.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또 한가지 기도제목이 조용히 마음 속에 소원이 되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교사를 여러 해 동안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과 생활 속에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전하며 공과를 열심히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배가를 해보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

작정된 시간 속에서 제목을 정하여 기도하던 중 학교와 구역을 정하여 전도하자는 뜨거운이 초 등5부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구역이

정해지고 학교전도 조직이 정해지면서 나에게도 논현국민학교 전도팀에 정 집사님과 한조가 되어 전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나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였다. 남편도 토요일마다 도와주었고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다른 집사님도 시간을 내주시며 열심히 도와주셔서 정말 힘이 되었다. 아이들 전도이기에 어떠한 미끼도 필요함을 느끼면서 기도하며 생각하던 중에 방법도 떠올랐다.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간단한 대화속

에 한 주일에 두세명씩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등반을 하고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열매에 나름대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때로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올때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었다. 때로는 오류 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였다.

학교는 전도의 여장이다. 만나는 많은 어린이들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하여 다른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만난 어린이들에게는 전화도 하고 주일날은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함께 전도하는 어린이동역자들도 열심히 하였다. 9개월동안 전도하면서 우리반도 9명에서 18명이 되었다. 작년 전도열매는 전도받고 나온 학생수가 160명인데 등반한 학생수는 120명이라고 한다. 만약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다면

학교전도의 열매와 기쁨



정 미 순

(집사·초등5부 교사)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지 않은가. 아이들과의 만남과 함께 학교와 교회를 왔다갔다 하면서 누렸던 기쁨과 사랑의 마음들이 떠오른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던 사역의 현장에 따른 막대기가 될 기회가 주어졌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렸다.

올해에도 학교전도팀이 짜여졌다. 드린 것에 비해 배푸신 너무도 많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해도 열심히 시간을 내볼 결심을 해본다.

토막소식

◆ **가브리엘찬양대**(대장 이종석 장로)는 지난 3월 19일(금) 조별찬양대회를 가졌다. 찬양대원들의 찬양대회답게 수준높은 대회였다고

◆ **영아부**(부장 정광호 장로, 지도 정연희 전도사)는 오늘 연구수업을 한다. 소망과의 이명숙 선생 담당이다. 그리고 오늘 1,2부 예배시간에 반별 주기도문 외우기를 한다.

◆ **유치부**(부장 박인세 장로, 지도 김정자 전도사)는 부활절을 맞으며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찬양대원은 15명 정도에서 제한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 **초등1부**(부장 김광남 장로, 지도 김필수 전도사)는 오늘 분반공부 후 연구수업을 한다.

◆ **초등2부**(부장 김종구 장로, 지도 정갑신 전도사)는 오늘 교사특강 시간을 갖는다. 강사는 정갑신 전도사 12반 이수호 선생과 어린이들의 연구수업이었다. 4월 25일 성경암

송대회를 앞두고 미리 미리 준비에 한창이다.

◆ **초등3부**(부장 김여순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는 다음 주일(3/28) 예배순서를 학생들이 담당하며 헌신예배를 드린다.

◆ **초등4부**(부장 윤광일 장로, 지도 장상기 강도사)는 지난 3월 7일에 있었던 성경암송 대회의 1등은 소망 4반의 이기백 어린이가 됐다.

◆ **초등5부**(부장 윤성철 장로, 지도 성봉환 목사)는 면회회를 구성하고 어린이 회장단을 선임했다. 회장 이미선, 부회장 이수연, 총무 이해선, 서기 이영환 어린이가 됐다.

◆ **초등6부**(부장 이창호 장로, 지도 한용관 목사)는 제4회 안드레전도운동 및 배가운동을 시작하여 4월 25일까지 1차 목표인 400명을 향해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중등1부**(부장 최무길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는 3월 21일 지난달에 가졌던 학생대심방의 보고대회를 가진다.

◆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이종대 목사)는 그동안 찬송가 부르기대회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오른 팀들이 오늘 드디어 결선

을 치른다.

◆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장봉생 목사)는 매주일 고등부 예배전 오전 7시부터 아멘홀에서 기도회로 모여 자유스럽게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며 주일을 맞는다.

◆ **대학부**(부장 박용삼 장로, 지도 이병각 목사)는 오늘 '예수사랑 봄잔치'를 열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초청하는 행사를 갖는다. 오후 1시 30분, 갈릴리홀에서 모인다.

◆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윤삼중 강도사)는 오늘 연구수업을 갖는다. 양선조와 담임 이찬욱 집사가 담당이다.

◆ **청년2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도 장우천 강도사)는 새 지도교역자를 모시고 새로운 활기에 가득차 있다. 장소도 충현교회에서 가장 높은 교육관 6.7층에서 봉사관 지하 3층으로 이전했다.

◆ **청년3부**(부장 최대원 장로, 지도 김해규 목사)는 지난주에 반개편을 하여 새로운 멤버들과 새로운 반장들을 만나게 되었다.

◆ **장년2부**(부장 이하영 장로, 지도 신표근 목사)는 오늘 각 반별 찬송부르기 대회를 가지며 반별친교를 도모한다.

◆ **장년4부**(부장 강순용 장로, 지도 정규남 목사)는 3월 28일 반별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가지기로 하고 준비에 한창이다.

◆ **새가족부**(부장 강은원 장로, 지도 홍창민 목사)는 3월 28일 성경암송대회를 갈릴리홀과 베다니홀에서 요한복음 1:1-14 범위로 갖는다.

◆ **새기정부**(부장 김재균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는 지난주일 집회시간에 「起源」에 관한 비디오프를 상영했다. 또한 오늘은 교구교역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새기정부의 소개, 필요성을 공감하고 교구내에서 홍보하는 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3시에 새기정부실(교육관 201호)에서 모인다.

◆ **소망부**(부장 마성락 장로, 지도 이인우 목사)는 오늘 각 과별로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갖는다. 지정곡, 자유곡 각 한곡씩 불러야 한다.

◆ **사랑부**(부장 송환창 장로, 지도 임성환 목사)에서는 교사로 봉사할 남성도(특히 12시부터 15시까지 차량운전)를 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이 글을 쓰려고 한다. 선교위원회 지도를 맡기 전까지는 선교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만 있었고 말만 있었지 마음 속으로 뜨거움을 소유하지 못했다. 특히 선교지 탐방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으레 관광을 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내 자신이었다. 그러한 나의 무지함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녹여주셨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다.

이번에는 내 자신이 선교위원회 지도라는 위치 때문에 선교지 탐방에 앞장서게 되었다.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관념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무척이나 조심했으며 기도로 준비했다. "주여, 이번 홍콩 탐방은 은혜가 넘치는 방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고공을 향하여 오르는 순간 창밖을 온통 수놓은 솜뭉치 속으로 모든 때론은 마음을 물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홍콩을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마음은 단 한 가지, 관광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선교에 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신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또 한번 깨닫게 되었다. 첫날 저녁 설립 예배시에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하나님은 다음 날 새벽으로 이어지는 새벽 기도회 시간에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다. 기도의 불이 불기 시작했다.

오전에 특강을 하신 시몬스 목사는 현지 선교사로서 20년 이상을 사역하신 분이셨다. 그는 현지 선교의 어려움이나 설무적인 것을 말했다. 끝이 아니라 C.C.C.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의 간증 고백이 있었다. 그 분은 선교사의 무덤이라 일컬어졌던 홍콩대학 내에서의 대학생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던 내용들을 간증했다.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선교란 희생이 없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홍콩 내의 대학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게 될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라 했는데 복음 안에서 그 한 알의 죽음으로 자만심에 차 있는 대학생들

이 하나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첫날, 강의가 끝나고 잠시의 휴식이 있던 후에 저녁 예배로 이어졌다. 신성중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점점 성령의 불을 당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을 지나고 또 다시 현지 선교사님의 특강이 있었다. 첫 시간에 나온 정전도사님은 중국 현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셨다. 지금까지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우리의 마음은 이 분의 강의를 통해서 온통 눈물 바다를 이루고 말았다. 회개케하는 성령의 역사가 홍콩 충현 교회를 온통 뒤덮어 버렸다. 그 분은 좋은 직장도 버렸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가족도 잘 돌보지 못했다. 그 분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중국에 있는 내 동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 분은 선교를 위해서 돈도 준비하지 않

간중이 계속되는 동안 신성중 목사님을 비롯하여 선교위원장인 하대선 장로님, 같이 동행한 권사님, 집사님들은 모두 손수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억제하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좋은 조건 속에서도 불평을 했던 자신들을 회개하기 시작했다.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도 열심히 선교하지 못한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짐을 했다. "주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와 결심의 눈물을 한 없이 흘렸다.

간중이 계속되는 동안 신성중 목사님을 비롯하여 선교위원장인 하대선 장로님, 같이 동행한 권사님, 집사님들은 모두 손수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억제하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좋은 조건 속에서도 불평을 했던 자신들을 회개하기 시작했다.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

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 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지금 북한으로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북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고 접촉되어진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므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고 잘 훈련된 그들을 통해서 북한은 복음이 확산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선교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며 중국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홍콩을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아 그곳에서 훈련되어진 선교사를 자꾸 들여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다음으로 이어진 김은태 선교사님의 보고대로 잘 훈련되어진 선교사 하나로 인해서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기에 홍콩에 대한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했다. 무르익어진 회개와 결심의 시간은 신성중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고, 홍콩 충현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뜨거운 신앙 생활을 하고 아울러 자신들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들의 계획을 재확인하게 했다.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비행기에 오르는 우리는 왠지 무거운 마음을 감하지 못했다. 도움이 될 줄 알고 왔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고 가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버렸으며 더욱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하겠다는 책임감 때문인 것 같았다. 이 모든 감동이 홍콩 충현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힘인 것으로 여겨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계 선교를 위한 계 도약을 이루게 하시려는 계획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또 한번 회개한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욱 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홍콩에서 흘린 눈물

김 양 흡

(목사, 선교위원회·22교구 지도)

있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브라함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대로 움직였다. 한편으로 미련하게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마를 때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간증했다.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인간의 계획을 초월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원주민 말을 할 줄 모르는 그가 통역도 없이 현지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간증을 구체적으로 했다. 특히 북한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그를 통역으로 세우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사셨다. 나중에는 그가 말씀을 너무 그리워하기에 마지막 한 달은 흡수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했다. 그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에 성경을 들려서 돌아가게 했다는 대목을 말할 때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내 민족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것이다.

고 선교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도 열심히 선교하지 못한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짐을 했다. "주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와 결심의 눈물을 한 없이 흘렸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흐른다. 선교에 무지한 자를 선교의 자리에 앉히고 그것만으로 안되니까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생각하니 흐르는 회개의 눈물을 감추어지지 않는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만 북한의 문제는 조심할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면으로는 더 자세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만큼으로 달아 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나중에 북한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한다. 마음대로 믿지 못하는 아쉬움과 보고 싶어도 마음껏 볼 수 없는 성경이 그럽다고 했다. 그 분의 간증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직접 할 수 있었으면 하